

북한 보건의료전략의 분석과 치과 분야에서의 적용 현황 고찰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³통일의료복지연구소,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⁶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서연^{1*}, 주우찬^{2*}, 조재현¹, 안경수³, 이해원⁴, 최성호⁵, 정희인⁶

* 표기된 두 저자는 공동의 제1저자로서 본 연구에 동일하게 기여하였습니다.

ABSTRACT

Present Status of Healthcare Strategy and its Application to Oral Health in D.P.R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²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³Research Center of DPRK Health and Welfare

⁴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⁵Department of Periodont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⁶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Seoyeon Jung^{1*}, Woochan Joo^{2*}, Jaehyun Jo¹, Kyeongsoo An³, Haewon Lee⁴, Seong-Ho Choi⁵, Hoi-In Jung⁶

* These two authors equally contributed to this work as the first authors.

In preparing for the era of Korean reunification,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medical systems and human resources. While Korean dental practitioners are expanding their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activities for improving the health of North Korean people due to political and historical reasons even nowadays. In addition, there is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state of dental health in North Korea.

We analyzed the reports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North Korea prepared individually or in cooperation,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lth care strategy applied to the dental field by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of the 2018 『Rodong』 newspaper.

Based on the above, we tried to grasp the major health care strategies in North Korea and their application.

Understanding the direction and status of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would be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actical activities to improve oral health care of North Koreans in the future. And there is a need that studies should be steadily conducted in various methods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Korea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Key words: North Korea, Healthcare system, Healthcare infrastructur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lthcare strategy

Corresponding Author

Hoi-In Jung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E-mail: JUNGHOIIN@yuhs.ac

ACKNOWLEDGMENT * 본 논문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정책과정연구비 수혜로 작성되었음

I. 서론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운영원리와 그 실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매우 이질적이다¹⁾.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의료 체계와 인력의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나, 최근에도 북한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정치적, 역사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치과 의료인들의 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북한의 현 치과의료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²⁾. 특히 북한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외원조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³⁾.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북한의 경제는 1998년을 바닥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회복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의 활성화 등 평양 등 대도시의 시장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⁴⁾. 시장화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 내의 실제 상황보다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 실상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연구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고⁵⁾, 더욱이 치과 분야의 현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혹은 북한 보건성과 협업으로 보건의료전략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현 북한 정권이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있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6-8,10,11)}. 이것이 구강건강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나 북한 현지의 매체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의료 체계의 치과계 적용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전략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보건의료전략을 파악하고, 북한의 현지 매체를 조사하여 실제 적용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기적으로 작성한 'Country Cooperation Strategy-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후 CCS로 통칭), 유엔 국제 아동 긴급 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과 북한 보건성이 함께 작성한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Sector DPR KOREA' (이후 MTSP로 통칭), 그리고 MTSP 내에 포함된 'National Health Priorities' (이후 NHP로 통칭)의 내용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어서, 2018년 일개년도 로동신문을 전수 조사하여, "구강", "치과" 주제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고, 구강 건강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북한의 보건의료 전략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과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북한 보건의료전략 보고서에 대한 정리

북한 보건의료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공식적인 자료는 CCS, MTSP, 그리고 NHP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CCS는 WHO에서 북한의 보건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적 협력을 진행할 사안의 우선 순위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CCS는 2004~2008년도, 2009~2013년도, 2014~2019년도 단위로 작성되었다. MTSP는 북한 보건성이 국제연합 (United nation; UN)과 협업하여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MTSP는 2010~2015년도, 2016~2020년도 단위로 제작되었다. 또한 NHP는 북한 보건성에서 국가적인 보건의료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우선순위 별로 제시한 것으로, MTSP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2016~2020년도 MTSP에는 동일 기간의 NHP가 반영되어 있고 CCS 역시 조금 수정된 형태의 MTSP를 반영하고 있었다.

CCS의 시기별 세부 내용은 Table 1에 요약하여 제시

하였다⁶⁻⁸⁾. WHO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여섯 가지는 각각 보건의료 전달체계, 보건의료 인력, 정보시스템, 접근성, 재정, 리더십과 통치 제도(governance)이다⁹⁾. CCS 또한 이 분류의 큰 틀 안에서 작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1995년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대외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방향성 변환을 요구하였는데³⁾, CCS의 내용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 전략들을 종합해봤을 때, 크게 '건강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건강증진에 대한 전략'과 '보건 의료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들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을 증진 시키고자 함과 더불어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나 '의약품의 충분한 제공' 등 보건 관련 인프라 확충 전략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

Table1. Contents of Country Cooperation Strategy–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CS) by period

CCS 2004-200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집단에서의 초과 사망률, 유병률, 장애 감소(전염성 질병 관리) 2.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경제, 사회, 행동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소 감소 3. 보건시스템 개발(수요에 맞는, 적절한 금액의 보건시스템) 4. 보건정책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CCS 2009-20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시스템의 강화 2. 여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3. 전염성 질병 문제 해결 4. 비전염성 질환 위험 요소 해결 5. 환경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건강요인 완화
CCS 2014-20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전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 2. 여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3. 전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 4. 보건 체계 향상 5.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WHO 국가들의 입지 확보

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WHO 국가들의 입지 확보' 등 초국가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는데, 특히 CCS 2014-2019에서는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양상이었다.

시기별로 전략의 큰 변화들 또한 관찰된다. 2010~2015년도 MTSP와 NHP, 그리고 이들이 반영된 CCS에서는 보건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이 '보건

의료시스템 강화' 혹은 '보건 체계 향상' 으로 제시되어 있었다(Table 2,3)^{10,11)}. 그러나 그 이후 2016~2020년도의 MTSP와 NHP에서는 원격 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고려 의학, 연구 역량의 강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과학기술 발전',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공급품 개선', '의료시스템' 항목과 그 세부 항목들이 추

Table 2. Contents of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Sector D.P.R KOREA (MTSP) by period

MTSP 2010-2015	
1.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1) 정책, 전략 및 협력, (2) 의료정보시스템, (3) 인적자원, (4) 의약품 공급 및 유통체계 및 전통 약물, (5) 회계 및 회계관리, (6)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7) 과학기술, (8) 지역 참여
2.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1) 만성질환, (2) 부상, (3) 정신건강, (4) 장애 및 노인건강, (5) 담배규제
3. 전염성 질병 관리	(1) 예방접종, (2) 말라리아, (3) 결핵, (4)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5) 바이러스 간염, (6) 유행병 대비책과 신종질병
4. 여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1) 모성 건강, (2) 신생아 건강, (3) 생식 건강, (4) 어린이 건강, (5) 영양, (6) 청소년건강
5. 건강의 사회 환경적 요인 개선	(1) 식품안전, (2) 개인위생증진, (3) 환경변화, (4) 안전한 식수와 위생, (5) 건강한 삶 조건, (6) 위기대응
MTSP 2016-2020	
1. 전염성 질병 관리	(1) 전국적 위생방역소 (Hygienic and Anti-Epidemic Station:HAES) 강화, (2)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Vaccine-Preventable Disease:VPD) 관리, (3) 감염병 관리
2. 비전염성 질환	(1) 만성질환, (2) 부상 관리 시스템, (3) 장애 및 노인건강, (4) 정신건강, (5) 담배규제
3. 모성 및 아동건강	(1) 모성 및 신생아 건강, (2) 생식건강, (3) 어린이 건강, (4) 영양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1) 환자안전 및 병원감염관리, (2) 전문화된 의료관리 개선, (3) 구역의제도, (4)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 (5) 원격의료시스템, (6) 응급의료서비스, (7) 인프라
5. 의료과학기술 발전	(1) 고려의학, (2) 연구역량강화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공급품 개선	(1) 의료 질 관리 역량 강화, (2) 지역생산, (3) 필수 의약품 및 유통체계, (4) 합리적 약물사용
7. 의료시스템	(1)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 관리 능력, (2) 의료정보시스템, (3) 보건의료에서의 인적자원
8.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 식품안전, (2)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 조건, (3) 기후변화, (4) 안전한 식수, (5) 비상 위험 관리

가되어 있다.

2016~2020년도 NHP에서도 '주체 중심 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 강화', '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원

격 의료 시스템 구축', '정보 지향적으로 보건부문 개선',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주치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Table 3. Contents of National Health Priorities(NHP) by period

NHP 2004-2008	
1. 결핵, 말라리아, HIV/AIDS	
2. 기타 감염성 질환 (B 형 간염, 감염성 장염, 기생충 감염)	
3. 비전염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구강 질환)	
4. 금연 교육	
5. 모자 건강	
6. 음식 안전	
7. 영양	
8. 정신 건강	
9. 혈액 안전	
10. 건강과 환경	
11.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12. 필수약품 및 약품 안전	
13. 보건 시스템 강화	
14. 보건 종사자 교육과 훈련	
NHP 2010-2015	
1. 전염성 질병 부담 경감	
2.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3. 주치의 제도 강화	
4. 모자 및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5. 주요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강화	
6. 충분한 의약품(필수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 제공	
7. 건강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8. 통합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	
9. 비상 사태대비 강화	
10.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NHP 2016-2020	
1. 주체 중심 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 강화	
2. 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3. 정보 지향적으로 보건부문 개선	
4. 질병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	
5.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6.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7. 주치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	
8. 보건계 종사자의 기술 역량 향상	
9. 모성, 아동 및 노인 보건 개선	
10. 양질의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산사 전문성 강화	
11.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 관리 능력 강화	
12. 비상사태 및 재난 즉각적 대응 역량 개발	

종사자의 기술 역량 향상' 등을 볼 수 있다(Table 2).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통해, 전통의학에 해당하는 '고려의학'의 현대화 및 개발을 증시하는 면모를 볼 수 있고, 보건의료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정보화'와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전략 기조 변화를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MTSP 2016-2020에서의 '지역생산과 같은 세부 항목은 북한 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 노선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암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적 개선은 북한 보건의료계에 자생력을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자생력은 직접 북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의 개선이라는 형

태로 혜택이 돌아가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 및 제반 사회 여건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건의료 전략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제적 빈곤이 극심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의료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의 투자는 시기상조이며, 당장 의료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또한 있을 수 있다.

2. 로동신문을 통해 바라본 보건의료전략의 치과 분야에서의 적용 현황

2018년도의 로동신문에서 치과 분야와 연관되어 나온 기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신 보건의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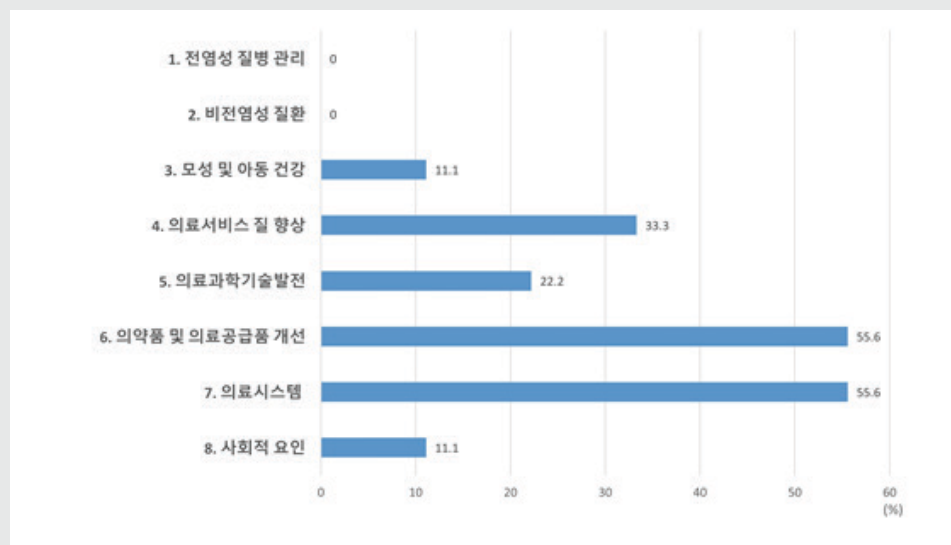


Fig. 1. This table presents the proportion of 8 items in the MTSP 2016-2020 in the articles of the 2018 『Rodong』 newspaper.

ORIGINAL ARTICLE

Table 4.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healthcare strategy to oral health among the articles in 『Rodong』 newspaper in 2018

날짜	기사 제목 및 내용	해당 보건의료 전략		
		MTSP 2016-2020		NHP 2016-2020 CCS 2014-2019
1.09	'모든 사업의 기준-민민의 요구와 리익'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의 설립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공급품 개선	'필수의약품 및 유통체 계' 및 '지역생산'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1.27	'뭇쟁이공장에 차넘치는 보답의 열정 - 평양치과위생용품 공장을 찾아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과 산하 연구소들	5. 의료과학기술 발전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공급품 개선	'연구역량 강화' '필수의약품 및 유통체 계' 및 '지역생산'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1.30	'과학기술중시기공과 치료사업성과 - 류경치과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류경치과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들. 최신의학과 학기술에 관한 도서의 집필, 치석 제거를 위한 약물의 자체 적 개발, 병원정보체계 '류경2.0'의 개발, 10여건의 첨단수술방법의 개발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공급품 개선 7. 의료시스템	'필수의약품 및 유통 체계' '의료정보시스템'	'주체 중심 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 강화, '정보 지향적으로 보건부문 개선', '고려의학 생 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3.20	'의료일군의 본분을 다하며 - 류경치과병원에서' 미세입플란트를 이용한 교정치료법의 조기도입 및 그를 위한 의료인 양성, 치과교정재료의 자체생산	5. 의료과학기술 발전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공급품 개선 7. 의료시스템	'연구역량강화' '필수의약품 및 유통체 계' 및 '지역생산' '보건의료에서의 인적 자원'	'주체 중심 의료 과학, 기술 의 발전 강화, '고려의학 생 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의료 종사자의 기술 역량 향상'
3.31	'세상에 돌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 류경치과병 원에 온 수많은 편지들을 읽고' 류경치과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들의 감사 편지에 대한 내용. 주로 당에 대한 충성심 포함.			
5.20	'생산보다 중시하신 문제' 흥남지역 노동자계급의 국민들을 위한 치과치료시설 확충 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 개설, 전문의사들과 보철사 등의 확 보에 대한 지시에 대한 내용(수십년전의 이야기)	MTSP 1 중 1, 보건의료시스 템 강화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7. 의료시스템	'인적자원' 및 '지역참여' '전문화된 의료관리 개 선' 및 '인프라' '보건의료에서의 인적 자원'	NHP 2010-2015 중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NHP 2016-2020 중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5.23	'사랑과 헌신에 보건일군의 영예와 긍지가 있다 - 북창군인 민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택한 길' 북창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광부와 발전소노동계급 중 사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철재료 공급을 유지하면서 현 장치료활동을 행함.	7. 의료시스템 8.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요인	'공중보건에서의 리더 십, 관리 능력' 및 '보건 의료에서의 인적자원'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 조건'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 관 리 능력 강화' (CCS 2014-2019 중 '비전 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
11.13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에 어린 은혜로운 사랑'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중 합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의 현대적인 시설, 아동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최신 의료장비들의 도입	3. 모성 및 아동건강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어린이 건강' '전문화된 의료관리 개 선' 및 '인프라'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모 성, 아동 및 노인 보건 개선' (CCS 2014-2019 중 '여성 과 어린이 건강 개선', '보건 체계 향상', '비전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
12.28	'참된 복무정신으로 - 함경남도치과병원에서' 함경남도치과병원에서의 치과 내 세부 과들의 전문화된 진 료 및 협진, 의료장비 가동을 위한 부품 자체 제작 및 이용, 화학공업부문 및 채취공업부문의 노동자계급 종사자들을 위한 현장치료활동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공급품 개선 7. 의료시스템	'전문화된 의료관리 개 선' 및 '인프라' '지역생산' '보건의료에서의 인적 자원'	'고려의학 생산, 의약품제작,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및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 관 리 능력 강화' (CCS 2014-2019 중 '비전 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

략들이 실제로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어떻게 반영 및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내용은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12~21)}. 일개년도 로동신문을 분석하여 MTSP 2016-2020의 8가지의 항목들이 북한의 국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선 순위로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으며, NHP 2016-2020의 12 항목 및 CCS 2014-2019 각 항목과의 연관성 또한 살펴보았다.

“구강”과 “치과”가 관련된 기사는 총 아홉 건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프라 확충’, ‘의료서비스 및 제도의 개선’, ‘지역생산’과 같은, 보건 의료 산업 및 인프라 관련 전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전면적으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¹⁾. 특히, 의료서비스의 전산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의약품의 공급 체계에도 관심이 커졌다. 병원과 연구기관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2013년 류경치과병원이 개원을 했으며, 2018년도 로동신문에 역시 이 류경치과병원 관련 건이 네 건(44.4%)으로 근대적인 시설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돋보이고, 두 건(22.2%)의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기사를 통해 의료용품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다. MTSP 2016-2020의 8 항목 가운데, 3. 모성 및 아동 건강 항목 한 건(11.1%),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항목 세 건(33.3%), 5. 의료과학기술발전 항목 두 건(22.2%), 6.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공급품 개선 항목 다섯 건(55.6%), 7. 의료시스템 항목 다섯 건(55.6%), 8. 사회적 요인 항목 한 건(11.1%)으로 6, 7번 항목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Fig. 1). ‘고려의학의 현대화’도 같이 강조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계급과 소아와 같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에서 ‘리더십’ 및 ‘관리 능력’이 강조되었으며, 노동자계급 ‘일꾼’들의 현장에서의 격려 및 의료공급을 위해 현장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Shin(2019) 등은 김정은 정권 하 북한에서 NHP가 실제 보건의료 상황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학 논문의 ‘사설’을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²²⁾. 이들은 북한에서 발간되는 아홉 종류의 의학 논문집 중 접근 가능한 여덟 종류의 7개년 동안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보건의료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56편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NHP 2016-2020 중 고려의학 생산 촉진, 의약품 제작과 의료기구의 근대화 촉진 항목(27.1%)과 주체 중심 의료 과학, 기술의 강화 항목(22.1%)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의 기조가 동일하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전략이 실제로 반영되는 양상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과 산하 연구소들 현황, 류경치과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들의 현황, 최신의학과학기술에 관한 도서 등 자료 생산, 구강치료 관련 약물의 자체적 개발, 병원정보체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첨단수술방법의 개발 등 로동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들이, 분석의 틀인 ‘연구역량 강화’, ‘필수의약품 및 유통체계’, ‘지역생산’, ‘필수의약품 및 유통체계’, ‘의료정보시스템’, ‘전문화된 의료관리 개선’, ‘인프라’ 등의 범주에 모두 중복되는 “모호성”과 “포괄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각의 기사를 정확한 분류 틀에 맞추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북한 보건의료전략들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건강증진에 대한 전략’과 ‘보건 의료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략’이 크게 두드러져 나타났는데, 가장 최신 내용인 MTSP 2016-2020 및 NHP 2016-

2020에서는 인프라 확충 관련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도모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한 현실성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2018년도 로동신문 치과 관련 기사들에서는 ‘보건 의료 관련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전략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인프라 확충’, ‘의료서비스 및 제도의 개선’, ‘지역생산’과 같은, 보건 의료 산업 및 인프라 관련 전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고려의학의 현대화와 같은 북한 특유의 보건의료전략 또한 반영되어 있었다. 다만, 새로 건설된 류경치과병원 및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과 같은 특정 시설들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이라

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향후 각 지방 도시로의 구강 치료분야의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의 확산을 주목해야 하겠다.

북한의 국내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구강 보건에 대해서는 더욱이 관심도도 높지 않고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로동신문의 기사는 대체로 당, 정치 체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내용이 주를 이루어 객관적인 참고 정보로서의 한계가 있으나, 보건의료전략의 국내 적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신희영, 이해원, 안경수, 전지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 의료 체계 동향: 전달 체계와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2016;8(2):181-211.
2. 한동현, 신터전, 명훈, 이승표, 김종철.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구강보건 의료 교류의 현황과 전망.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15;53(10):705-711.
3. 박상민, 이해원. 북한의 보건 의료 현황과 효율적 지원 방안. J Korean Med Assoc. 2013 ;56(5):368-374.
4. 박영자, 조정아, 홍제환, 정은이, 정은미, 이석기, 전영선, 강호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의 8대 변화. 통일연구원. 55-84. 2018
5. John J Park, Ah-Young Lim, Hyung-Soon Ahn, Andrew I Kim, Soyoung Choi, David HW Oh, Owen Lee-Park, Sharon Y Kim, Sun Jae Jung, Jesse B Bump, Rifat Atun, Hee Young Shin, Kee B Park.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on public health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MJ Global Health 2019;4:e001133.
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4-200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9-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2016.
9. Systems Thinking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Geneva: Alliance for Health Policy and Systems Research; WHO, 2009
10. Ministry of Public Health in partnership with WHO,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SECTOR IN DPRK 2010-2015. 2010 Apr.
11. Ministry of Public Health. Medium Term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Sector DPR KOREA 2016-2020. 2017.
12. 김준혁. 모든 사업의 기준-인민의 요구와 이익. 로동신문. 2018년 1월 9일.
13. 김옥별. 맞춤형공장에 차넘치는 보답의 열정. 로동신문. 2018년 1월 27일.
14. 김옥별. 과학기술중시기공과 치료사업성과. 로동신문. 2018년 1월 30일.
15. 방경찬. 의료일군의 본분을 다하며. 로동신문. 2018년 3월 20일.
16. 최유일. 세상에 돌도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로동신문. 2018년 3월 31일.
17. 최유일. 친어버이심정. 로동신문. 2018년 4월 11일.
18. 김성남. 생산보다 중시하신 문제. 로동신문. 2018년 5월 20일.
19. 김성민. 사랑과 헌신에 보건일군의 영예와 긍지가 있다. 로동신문. 2018년 5월 23일.
20. 한영민. 현대적인 의료봉사자들에게 어린 은혜로운 사랑. 로동신문. 2018년 11월 13일.
21. 차수. 참된 복무정신으로. 로동신문. 2018년 12월 28일.
22. Bo Kyung Shin, Woo Taek Jeon. National Health Prioritie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012-2018. BMJ Global Health 2019;4:e001518.